

정부위탁 신설업무 및 '기계설비건설 2011 워크숍' 분임토의 결과 논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6월 16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회장단 회의를 지난 6월 16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정부위탁 신설업무 및 기계설비건설 2011 워크숍 분임토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먼저 협회의 정부위탁 신설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회장단은 설비건설업 등록 등 정부위탁업무 신설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회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어서 지난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기계설비 2011 워크숍'에서 분임토의 결과 도출된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회장단은 건별로 논의하여 협회 및 조합의 추진 방침을 정했다.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으로는 협회와 관련하여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건설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건설공사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기타사항 등이며, 조합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보증업무 관련 △신규사업 관련 △기타사항 등이다. ●

2011년도 적용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대한설비건설협회(정해돈)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2011년도 적용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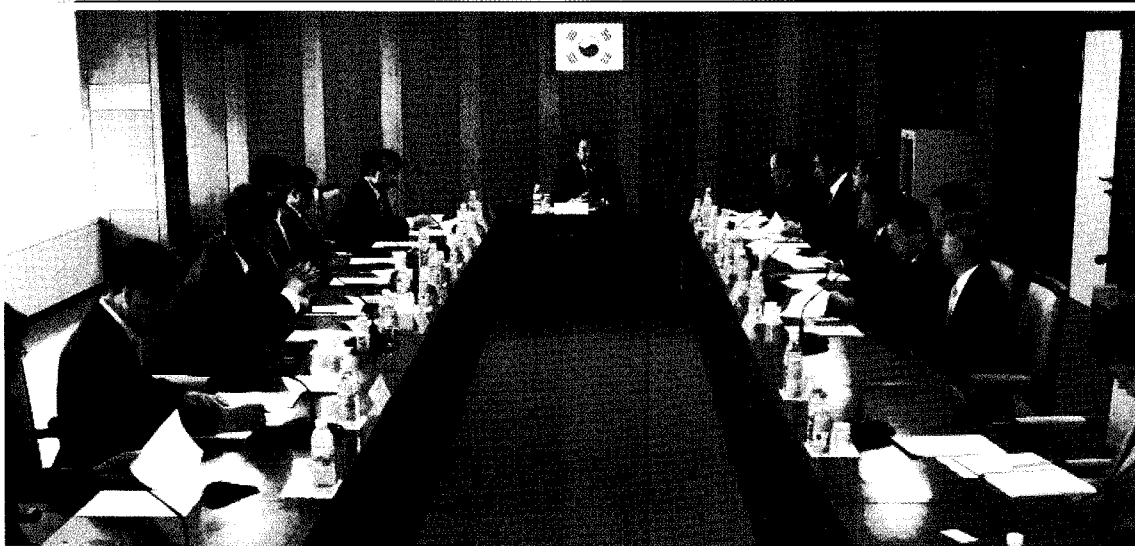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2011년도 적용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 비율은 2011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적격심사용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발급한다. ◉

2011년도 업종별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업종구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산회전율(회)
기계설비	115.09%	147.19%	1.63회
가스종	171.33%	120.59%	0.84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에 송기영 (주)금화피에스시 대표이사 선출



▲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0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송기영 (주)금화피에스시 대표이사를, 부위원장에 이세순 (주)정진공영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플랜트시공업계의 연이은 해외건설 수주는 침체된 국내건설 경기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나 점점 심해지는 과열경쟁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를 절대적으로 자제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플랜트 시공업계를 위한 여러 의견을 반영해 협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와 더불어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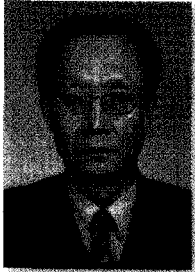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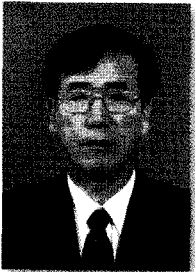
- 플랜트건설현장 외국인 고용 허용 추진
 - 기계설비공사사업자는 외국인 고용기회 상실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기업활동에도 규제를 받고 있어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고용노동부장관초청간담회’에서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부분 삭제 삭제 건의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허용 검토중” 답변 받음 ○

대한설비건설협회 제8대 제위원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 송기영



부위원장 이세순

직위	성명	소속	지역	
위원장	송기영	(주)금화피에스시		
부위원장	이세순	(주)정진공영		
간사	신윤하	국제산공(주)	서울	
	김성언	(주)정풍개발		
	조영대	(주)웅남		
	박영진	범등건설(주)		
간사	이명환	건종이앤씨(주)	경기	
	김영승	범호기업(주)		
	변동주	우림플랜트(주)		
	이교환	범진기공(주)		
	김종현	석원산업(주)		서울
	김기영	성장이앤씨(주)		
	황선복	삼진공작(주)		
	이희철	(주)유일건영		
	이계영	다림건설(주)	경기	

편집위원회



위원장 조기호

직위	성명	소속	지역
위원장	조기호	한경이앤씨(주)	
위원	윤영근	한국계장(주)	서울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 조종택



부위원장 이두형



부위원장 김길진

직 위	성 명	소 속	지 역
위원장	조종택	금주건설(주)	서울
부위원장	이두형	인우공영(주)	
부위원장	김길진	윤진이앤씨(주)	경기
	박승우	(주)아시아에너지	
	이영환	(주)남한엔지니어링	
	김덕용	(주)가야기건	서울
	김영태	협창건설(주)	
	이정수	(주)화인이앤씨	
	차동영	(주)경보엔지니어링	부산
	이민균	동명건설산업(주)	대구
	강성도	(주)케이브이가스텍	인천
간사	최재동	덕원개발(주)	광주 · 전남
	강매선	(주)신광엔지니어링	대전 · 충남
	김일곤	우경테크(주)	울산 · 경남
	백수현	대명건설(주)	경기
	김종호	(주)진용	
	윤종훈	(주)그린엔지니어링	강원
	고을식	(주)진영산업개발	충북
	최한선	(유)한빛이엔지	전북
	김동수	(주)세한	경북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 전치권



부위원장 최두현



부위원장 이명우

직 위	성 명	소 속	지 역
위원장	전치권	(주)아이시에스	서울
부위원장	최두현	(주)동양이엔씨	서울
부위원장	이명우	하나이앤지(주)	경기
총무간사	이선희	(주)현우콘트롤테크	
간사	김경호	한경기전(주)	
	최전남	남성기전(주)	서울
	김영석	(주)대성엔지니어링	
	이준원	(주)유림엔지니어링	
	김태원	(주)삼원씨앤지	강원
	정복진	(주)창조이엔텍	
	박종성	현대계장공업(주)	
	정찬면	(주)이일엔지니어링	서울
	유경하	서전엔지니어링(주)	
	강래원	(주)이레에너지테크	
최종원	삼일씨티에스(주)	경기	

“서울특별시로부터 분리발주 검토 긍정적 결과 얻어”



▲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6월 8일 르네상스서울호텔 토파즈룸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6월 8일 르네상스서울호텔 토파즈룸에서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원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회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업계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업계는 주택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와 PF대출 부실로 인한 중견 종합건설사의 부도·워크아웃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시회가 회원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서로 배려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회장은 “지난 워크숍에서 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본회에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가운데, 특히 본회 정해돈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우리 회원사의 단결된 마음을 규합하는 일에 대표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언급하며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개최된 하도급개선협의회 회의에서 우리시회가 건의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와 주계약

자형 공동도급 제도 참여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적극적으로 분리발주를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모든 회원사의 단결된 의지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강사로 초빙된 김은성 KBS 아나운서는 ‘마음을 사로잡는 CEO 스피치’라는 주제를 통해 “스피치란 자신이 가진 콘텐츠를 잘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이며, 최고 경영자는 타인과의 소통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고 지시하며 기업을 이끄는 만큼, 나를 들여다보고 남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경청한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들은 “자신이 많이 알고 의지가 분명해도 남을 공감시킬 수 없으면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호 교류에 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오늘 강의를 통해 상호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폭넓게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



▲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서로 배려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밝혔다.



▲ 김은성 KBS 아나운서는 강연에서 “니를 들여다보고 남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등 의결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6월 2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37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부의사항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업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노력을 다해 주시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업무추진실적과 7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월 업무 추진 실적

-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 대표회원 조찬 간담회 개최
- 시·도회장 협의회 개최
- 2011년 적격심사 적용 공사실적 공시 및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준비
- 2011년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업무 추진(계속)
- 2011년 건설의날 기념행사 및 정부포상 수상
-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시 PQ심사 가점 부여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교육 개최
- LH공사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추진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 서명운동 추진

- 제27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업무
- 2011년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추진

● 7월 업무 추진 계획

- 건설노무관련 실무교육 개최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탄원서 연대서명 제출
- 제27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실시
-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업무 추진(계속)
- 표준품셈 개정
- 미가입 업체 협회 회원가입 독려

하도급 제도 현황과 범위반 사례 및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해설



▲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6월 24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회원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6월 24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본회 정책지원실 김일 차장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강의를 맡았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특히 정부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도의 현황 및 범위반 사례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참여 등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여 회원사의 이해를 도왔다.

실무교육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내용
- 건설산업 하도급관리체계 및 제도
- 최근 개정 주요법령 및 범위반 사례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관련

이연풍 광주·전남도회 회장, 하도급대금 직불의무화 등 건의



광주광역시 건설방재국(국장 송영한)은 지역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26일 광주광역시청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연풍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박치영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장호직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등 관내 건설관련 단체장과 광주광역시 계약·건설담당관 및 건설노조 등 17명이 참석해 지역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활성화 △대형공사의 최저낙찰제 발주지양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발주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보장 △대형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지역의무 및 분할 분리발주 활성화 △하도급대금 직불의무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완화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조례 개정 내용 △혁신도시 추진현황 △노사 상생협력 방안 등에 관한 건의 및 토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현행제도로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개선토록 추진하겠으며 대형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청 및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공구분할 등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적극 시행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 합동으로 광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이 지난 6월 15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광주·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지난 6월 15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광역시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와 함께 설비·전문건설업체 임직원 및 광주시 계약·건설 행정 담당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로 대안을 제시하며 상생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시정 홍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해설 및 발주현황 △광주도시공사 추진 현안사업 △지역 설비·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하도급보호조례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토론·발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래영 공인노무사 및 윤을한 법무사 자문 위촉 회원사 인사 · 노무 · 법무관리에 만전



7 /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28일 정래영 공인노무사와 윤을한 법무사를 각각 노무 · 법무 자문위원 위촉했다.

광주 · 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회원사의 인사 · 노무 · 법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협회 사무처에서 이연풍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래영 공인노무사(에이스 노무법인 대표)와 윤을한 법무사를 각각 노무 · 법무 자문으로 위촉했다.

정래영 공인노무사는 목포시, 세화의료법인, 한국광기술원, 광주시내버스운송조합, (주)엠코 건설사, 광주시환경시설공단 등의 노무 · 인사관리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앞으로 관내 회원사의 노무 ·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과 업무교육 및 실무서 배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윤을한 법무사는 밀나노직업학교 강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위원,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자문위원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 전문가로서 회원사에 대한 임원임기 변경 등 법인등기 사항 관리와 법무 제반업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이연풍 회장의 공약사항으로, 회원사가 본회 노무사와는 별도로 광주 · 전남도회 자문 노무 · 법무사를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거리를 절약하고 인사 · 노무 · 법무 관련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



정래영 공인노무사는

- 목포 문태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고위과정 수료
- 現 에이스 노무법인 광주 대표

- 現 광주지방법원 민사노동전문 자문위원
- 現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 現 목포시, 광주시환경시설공단, 광주시도시철공사 자문위원
- 現 (주)엠코 건설사 자문위원 등
- TEL 062-382-9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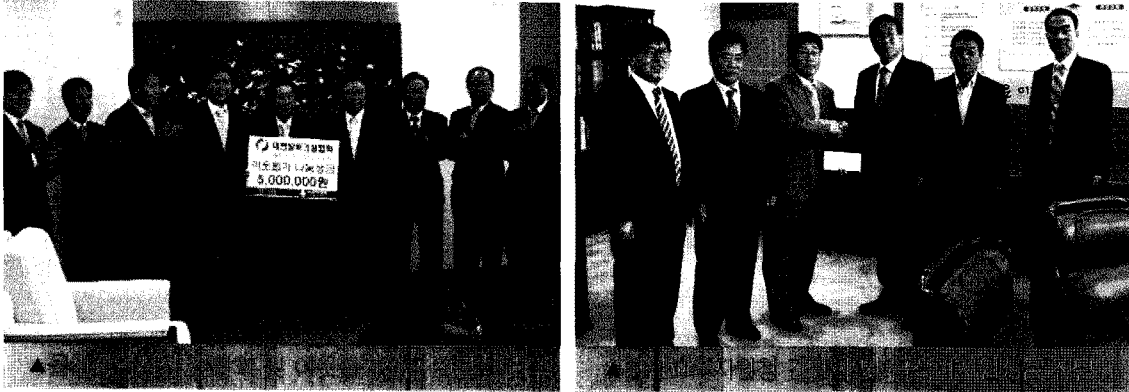


윤을한 법무사는

- 광주 북성중학교 졸업
- 광주 금호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 밀나노직업학교 강의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위원
- 現 법인관리시스템 운영
- 現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자문위원 등
- TEL 062-382-9968

3개 권역별로 지역 활성화 추진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올해부터 관할지역을 울산권(울산 인근), 경남중부권(창원 인근), 경남 서부권(진주 인근) 등 3개 단위로 나눠, 각 지역 소재 회원사와 함께 지역 설비건설업 활성화 및 업역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한 첫 행보로, 지역별 발주기관을 방문해 기관장 간담회 및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고 있어 회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경남도회는 지난 5월 23일 경남중부지역 회원사들과 함께 창원시청을 방문해 창원시 부시장·건설국장·시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건의 및 지역 설비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6월 7일에는 창원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추경엽 교육장에게 급식비지원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 설비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울산·경남도회는 울산권 회원사와 함께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해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및 건설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노사문제 및 설비건설업계 활성화 지원에 대한 건의를 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이웃돕기성금도 기탁했다.

한편 울산·경남도회는 7월 중 경남서부지역 회원사와 함께 진주시청 및 진주교육청을 방문해 급식비지원 성금 전달 및 발주기관 관계자와 함께 지역 설비건설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울산·경남도회는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 발주기관과 회원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

채용생 속초시장 및 박선규 영월군수에게 “분리발주 확대” 건의



강원도회(회장 장효성)는 지난 6월 13일과 29일 속초시청 및 영월군청을 방문, 채용생 속초시장 및 박선규 영월군수와 면담하고, 대한설비건설협회 홍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효성 회장은 면담을 통해 “원가절감 및 고품질 시공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채용생 속초시장과 박선규 영월군수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만선 속초시 회계과 과장 및 김종호 영월 부군수·엄윤섭 영월군 재무과장 등은 시설공사 발주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회는 강원도내 발주처들을 방문,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내 전 발주처에서 기계설비공사의 전면적인 분리발주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

포항·구미·안동·경주 지역별 고문변호사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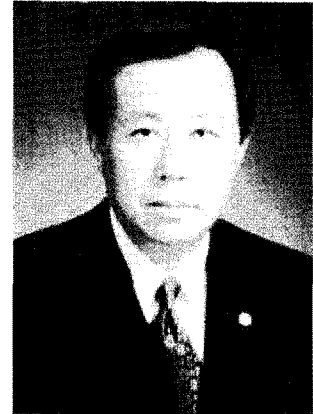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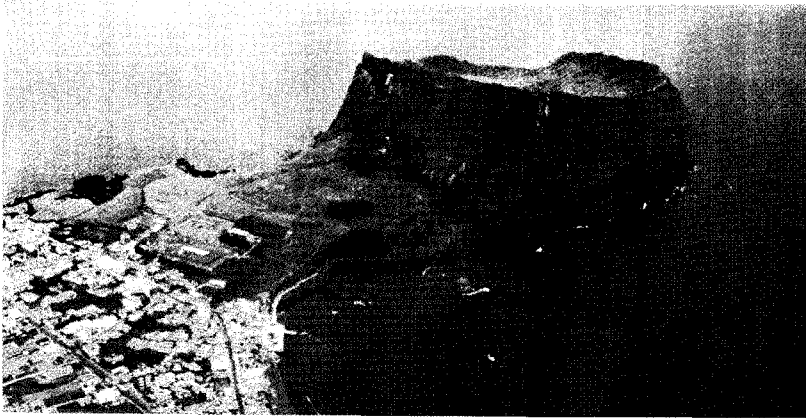
▲ 경북도회는 지난 5월 9일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지역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구미, 포항, 안동, 경주 위촉식)

경북도회(회장 추용엽)는 지난 5월 9일 회원사의 인사·노무·법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각 지역별로 이수환, 서한규, 이상호, 김상목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수환 변호사는 경상북도 의사회 법률고문,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포항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서한규 변호사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조정위원 및 구미시·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이며, △이상호 변호사는 올해 5월까지 경상북도 의회 고문변호사였으며, △김상목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이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의 자문 상담시 대한설비건설협회 경북도회 회원사임을 밝힐 경우, 법률 및 각종 업무에 관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성명	지역	연락처	소속
이수환 변호사	포항	(054)249-0040	법무법인 가야종합 포항분사무소
서한규 변호사	구미	(054)455-8900	구미시·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안동	(054)853-0230	화산합동법률사무소
김상목 변호사	경주	(054)774-4141	법무법인 두우 앤 이우경주분사무소

장영홍 회장,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건설분야 분과위원 활동 펼쳐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홍 회장(사진 오른쪽)은 제주도 선정을 위해 전국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은 제주 성산 일출봉)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홍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은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영홍 회장은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해외 관광객 증가로 관광 및 부대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비건설인 모두가 투표 참여 및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제주도는 28개 후보지역 중 인간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유일지역이며 세계 최초로 자연환경분야에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바 있어 선정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각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 속에 전화와 인터넷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완료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11월 11일 세계 7대 자연경관이 선정된다.

투표 방법은 표와 같다.

기타 자세한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064-710-3951)와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064-755-9828)로 문의 바란다.●

전화 투표	① 001-1500-7715
	② 전화 연결 후 60초간 영어 안내가 끝나고 "빠~ 소리가 나면 7715(제주코드) 입력
	③ 감사 멘트(Thank you)후 종료
인터넷 투표	① www.N7W.com 클릭
	② 투표배너 클릭
	③ 제주도 등 7곳 선택 후 →오른쪽 하단 'Continue to Step 2' 클릭
	④ 회원가입 후, 하단의 'Register' 클릭
	⑤ 회원가입시 가입한 메일함에 메일 수신 확인
	⑥ Successfully 단어가 보이면 투표 완료

회원사 밀착형 서비스·경영지원사업 강화 일환, 노무강습회 전국 순회 실시



▲ 부산광역시회(6월23일)



▲ 대구광역시회(6월21일)



▲ 경기도회(6월24일)



▲ 경북도회(구미:6월20일, 포항:6월27일)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 회원사 밀착형 서비스에 나섰다. 이번 노무강습회는 최근 변경된 노동법률 및 노무관련 제도를 비롯하여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관리 ▲일용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산재보상 처리실무 ▲노동부 진정·고발 처리실무 등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협회 노무자문위원인 이덕조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파트너)가 강의를 맡았다. 협회의 이번 전국 순회 강연은 정해돈 회장이 취임사에서 “회원사의 현장 애로사항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회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 법률 및 경영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전국 시·도회의 노무강습회 일정은 표와 같다. ●

시·도회	강습회 일정	장소
서울	7월 8일 14시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
부산	6월 23일 14시	설비건설회관 상의홀
대구	6월 21일 12시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
인천	7월 13일 14시	인천상공회의소
광주·전남	7월 15일 14시	광주 정보통신센터
대전·충남	7월 5일 14시	대청ENG 빌딩
울산·경남	7월 1일 14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소강당
경기	6월 24일 14시	수원상공회의소
강원	7월 7일 14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회의실
충북	6월 30일 14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	7월 12일 14시	전주 사학연금회관
경북	구미 : 6월 20일 14시	구미상공회의소 중회의실
	포항 : 6월 27일 14시	포항청년회의소 회의실